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9. 주 은혜를 받으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릇된 것은 고쳐주시고 상처난 곳은 치유해주시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자기 욕심에만 눈멀어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한 쪽의 행복과 편리는 또 다른 한 쪽의 고통과 절망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없는 욕망을 따라 살다 또 다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17. 시편 65 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성경봉독 I. 막3:7-12 인도자

II. 몬1:4-14 김현영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의 아들 김재흥 목사

II. 그는 바로 내 마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36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이미 인정하신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우리의 작디작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항상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상처는 작게 보고 그가 받은 상처는 크게 보겠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에 주님의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7월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하정석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장영숙 전도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최철수	배상순	박애순	권미숙
	헌금위원	한상익	김용진	이인웅	구명자	안정숙	백혜숙

마술인가, 믿음인가

나는 호스피스 단체에서 전문 상담가로 일하고 있다. 죽어가는 이들을 상대하다 보니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된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다.

젊은 때는 주변에 무슨 소원이든 척척 들어주는 유리병 속 요정쯤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들뿐이었다(톱으로 썬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위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이들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고 죽는 데는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실패는 혹시라도 눈에 떨세라 재빨리 뒤뜰에 묻어버리고 이른바 ‘성공’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에 대고 소리쳐 알렸다. 그러나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는 법이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을 건지고 또 더러는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다가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주차할 공간을 잡아달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식의 해석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도와달라는 식이다. 스스로 기도의 응답이 되려는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법을 믿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어제 큰아들 내외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했다.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날아온 목재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는 바람에 시속 110킬로미터로 달리던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빙글 돌아버렸다. 다행히 자동차만 부서졌을 뿐, 식구들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왔다. 목격자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은 그렇게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걸 놀라워했다. 사고 직후에 다른 두 아들도 우연히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현장을 목격했다.

어제 밤, 온 식구가 모여서 사고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대인 아들 중 하나(우리 집에선 ‘무신론자 토머스’로 통한다)는 별의

별 사건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무질서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형과 형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를 몰았던 큰아들은 자기를 구해준 건 하나님이었다고 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다. “막 할머니 무덤에 꽃을 꽂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알다시피 할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잖아요. 생전에 식구들을 축복하고 보호해주시길 간구했던 기도가 오늘 응답된 거라고 봐요.” 아내 역시 주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다고 믿었다.

끔찍한 사고가 난 후로 몇 년이 지나도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우리와 더불어 그 자리에 머무셨다. 우리를 돕고 계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셨을 게 분명하다. 주님은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힘과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좀 더 잘 얘기하고 싶은 데 그게 잘 안 된다. 아무튼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던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9:24)

--데이비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축복 기도

하나님께서 편한 길과 반쪽짜리 진리,
 피상적인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심령을 주셔서,
 마음속 깊이 침잠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핍박, 인간에 대한 착취에
 분노할 줄 아는 심령을 주셔서,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아픔과 거절,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심령을 주셔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세상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의 복을 주셔서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다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모든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약1:19) 하라는 성서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도록 하십시오. 손과 발과 귀는 두 개씩 있는데 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사과가 썩기 시작하는 것은 작은 흠집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마음의 빛나 감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으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사람을 악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살기를 원하노라.”(겔18:23 참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회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습관의 노예입니다.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낡은 습관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 L. 수자, <<님은 바람 속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상익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권호천 배삼순 김용길 최영혜 배근수
 김금순 정백승 민유명 숙이예 정운 손수진 배한선 김장성 길조병 허무송 송양진
 왕성한 강순배 최중미 오진훈 노순옥 최홍희 배선희 김장황 지현 권미숙 양재성
 김정길 최숙화

월정헌금:

김영순 배부례 박준희 이기분 이갑재 이희균 김영한 전영자 조순덕
 황경순 정미경 김지현 김지은 이증자 이재구 황선희

감사헌금:

박병선 배옥식 오진훈 노순옥 조항범 오현정 박숙현 오정숙 박병구
 허경기 임미심 김혜권 무명2

캄보디아 우물헌금: 윤여준 박찬정 최동운 김병준 송남철 신동래
 박준희 이기분 **생일감사헌금:** 한상익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강인식 오진훈 노순옥 정두리 권미숙 김중수 이순정
 (누계 : 83,475,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연 합 속 회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대신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동참하십시오. 이번 모임에서 각 동호회의 회장을 선출해주십시오. 다음 주일(22일) 오후 1시 30분에 동호회 회장 모임을 세미나실에서 갖겠습니다.
2. **아름다운원로모임** : 18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3. **녹색가게** : 다음 주일(22일) 오후 1시 1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녹색가게가 열립니다. 품목은 책, 비디오 테잎, DVD, 음악 CD, 휴가용품 등입니다.
4. **전교인 수양회** : 전교인 수양회가 '녹색의 품으로'라는 주제 아래 열립니다. 선교회 회장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때 : 8월 6일부터 8일 곳 : 충주제일교회 기도원
5. **웨슬리 강독** : 7월 19일(목)까지 하고 방학합니다.
6. **신앙실천** :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에 바치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 평화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토요주방봉사(21일) : 장영숙 구성실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안정숙(생일) 최성애(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